

MARKET STRATEGY

2026. 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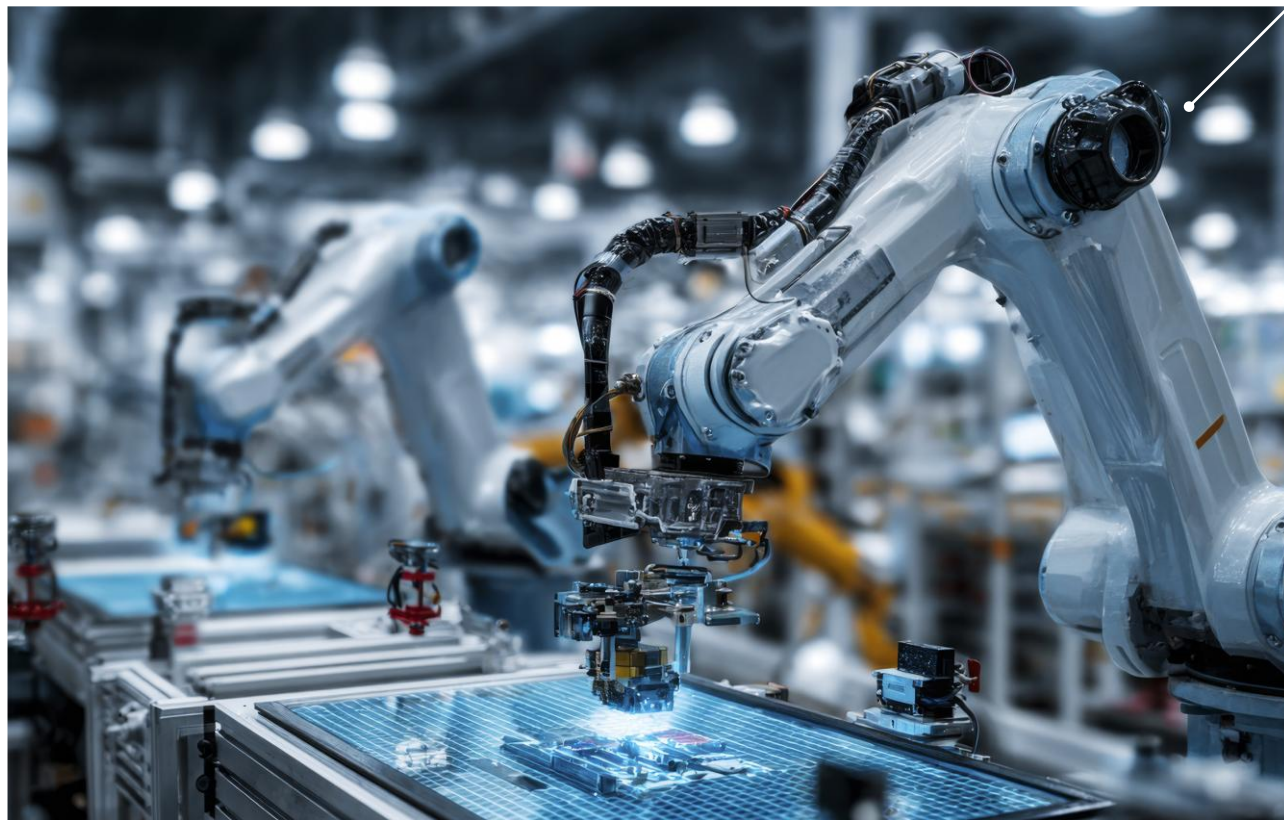
글로벌투자전략팀

양일우 팀장

iw.yang@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 2026년 6월 |

투자 견인 성장 사이클 지속

6월 한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 사이클 지속 - AI 관련 업종 비중 높은 것이 유리

6월 글로벌 증시 핵심 변수로서 1) 투자 사이클 지속 여부, 2) IT 업종 이익 모멘텀, 3) 미국 물가와 FOMC 제시

2026년 5월 KOSPI는 S&P500의 4배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변동성을 보여줌. 따라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글로벌 매크로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 미국에서 산업 및 상업용 대출 성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GDP 성장에서 투자가 기여하는 비중도 높게 유지될 전망.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 수입의 증가를 반도체 등 수출 서프라이즈가 압도하기 때문. 현재는 한국 GDP 내에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지만, 시간을 두고 민간소비 및 투자(고정자본 형성)의 기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증시에서 IT 업종의 이익 모멘텀은 매우 견조. 특히, 미국 내에서 IT 하드웨어에 비해 이익 모멘텀이 약했던 소프트웨어 업종의 이익 모멘텀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IT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미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다른 증시 대비 강하게 나타남. 매크로 및 지정학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IT 및 관련 인프라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한편, 미국 국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고, 미국 CPI에서 주거비와 기타 서비스의 기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증시 상승세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한편, 6월 FOMC는 케빈 워시가 의장 자격으로 처음 주재하는 FOMC. 당사는 Fed가 올해 12월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전망은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나, 향후 전망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방향이든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경우, 기준 금리의 궤적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

6월 KOSPI 밴드로 12개월 예상 P/E 8~10.3배를 적용한 7,200~9,200pt를 제시. P/E 8배는 KOSPI 바닥으로서 장기간 의미 있게 작용한 밸류에이션이고, 10.3배는 지난 20년 간 평균 수준. Top pick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LG전자, 한국금융지주, 삼성E&A, 신세계 제시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
양일우 팀장
iw.yang@samsung.com

REPORT CONTENTS

01 주식시장 전망 04p

02 업종 전략 19p

PART
01

주식시장 전망

KOSPI 2026년 상단 11,000pt로 상향 조정

▶ 밸류에이션 정상화된다면 한국 증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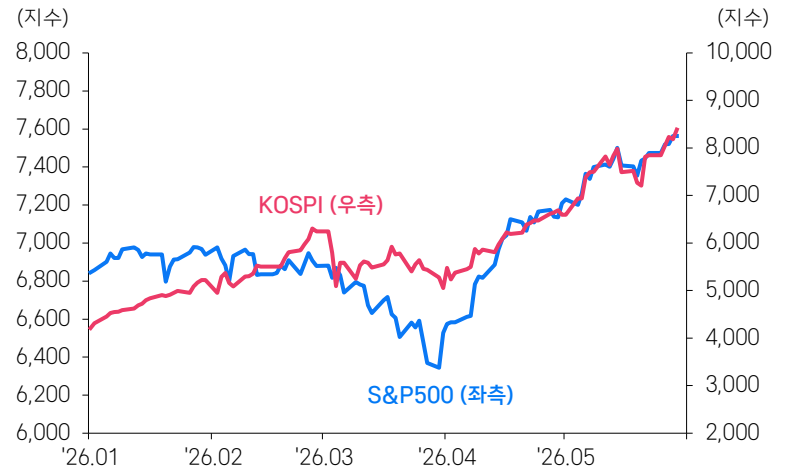
- KOSPI 12개월 예상 ROE가 22.1%로 1개월 전 19.6%에 비해 상승
- 지속 가능 ROE 추정 14.8%에서 16.1%로 상향 조정하고 타깃 P/B도 2.2배에서 2.75배로 상향 조정
- 2026년 5월 KOSPI는 S&P500의 4배 레버리지 상품처럼 움직임. 따라서, 글로벌 경기를 민감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연간 상단 상향 조정 내용

가정	4월 30일	5월 26일
KOSPI200 영업이익 컨센서스 ('27년, 조원)	1,006	1,125
12개월 예상 ROE (%)	19.6	22.1
지속 가능 ROE 가정 (%)	14.8	16.1
적용 P/B (배)	2.2	2.75
P/B 1배 KOSPI	3,800	4,000
KOSPI 타깃 (pts)	8,400	11,000
내재 P/E (배)	10.7	12.4

자료: LSEG, 삼성증권

KOSPI vs S&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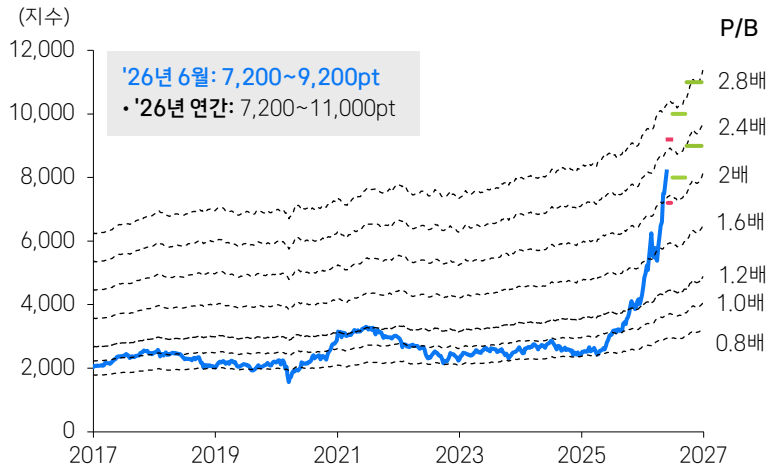
참고: 우측 스케일 (8,000=10,000-2,000)은 좌측 스케일 (2,000=8,000-6,000)에 비해 4배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6월 KOSPI 전망: 7,200~9,200pt

▶ 다양한 이벤트에도 상승 추세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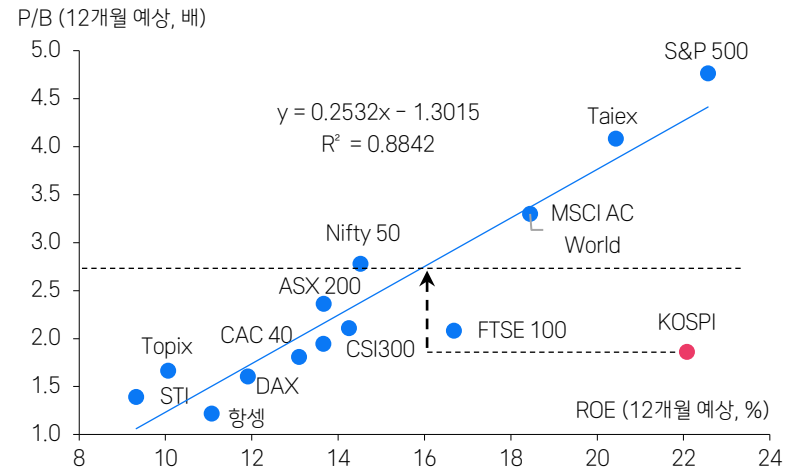
- 12개월 예상 P/E 8~10.3배를 적용한 7,200~9,200pt를 6월 밴드로 제시
 : 2026~2025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예상 P/E 8배 이하에서 3주 이상 거래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7,200pt는 연간 저점 의미도 있을 것

2026년 KOSPI 전망



참고: 5월 28일 12개월 예상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글로벌 증시 ROE와 P/B



참고: 5월 25일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에 증시 반등세

▶ 5월, 미미한 성과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증시 하락하다 미국-이란 평화 협정 기대감 및 AI 업종 호황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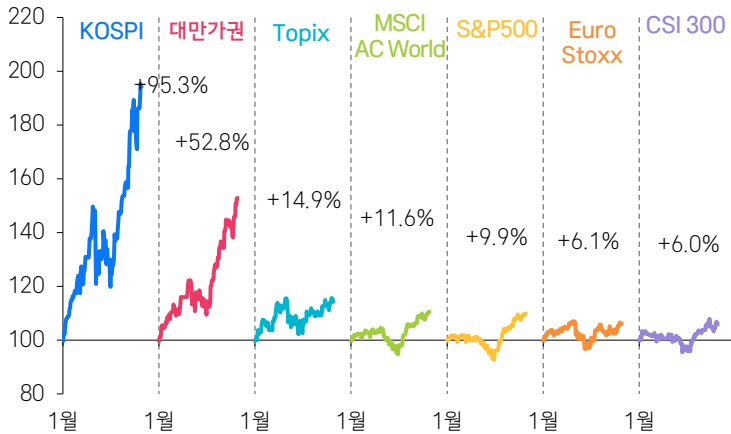
- 전쟁 장기화 이슈 부각되며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로 미국채 10년물 금리 4.5% 넘어서며 증시 조정 있었지만, 다시 종전 협상 진전에 상승

▶ 미국-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에 달러 약세 압력 작용으로 달러 소폭 하락

- 5월 달러 대비 원화, 엔화 각각 1.0%, 1.6% 절상

글로벌 증시 performance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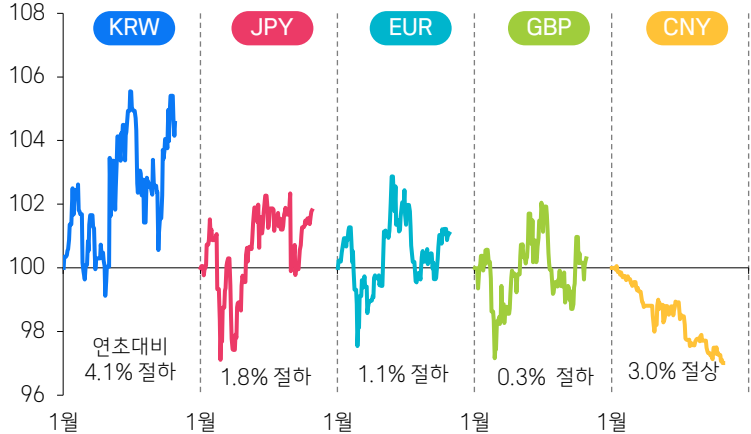
(지수화: 2026.01=100)



참고: 5월 27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주요국 환율 추이

(지수화: 2026.01=100)



참고: 5월 27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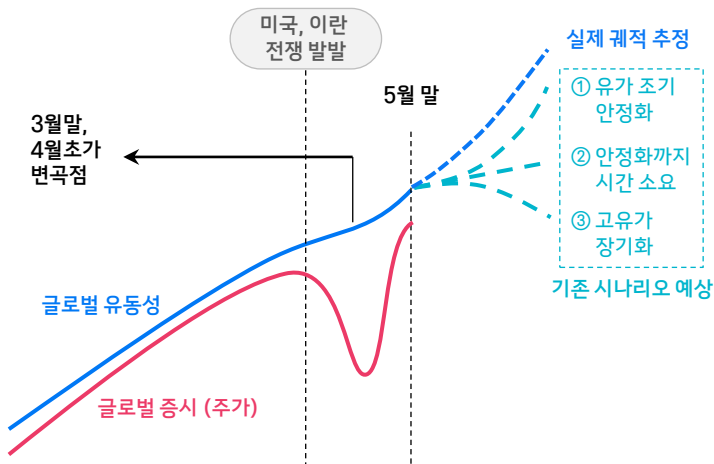
유동성 확장 속도 전쟁 전 수준 대부분 회복

▶ 글로벌 유동성 흐름 기존 예상 대비 빠르게 회복

- 여전히 유가가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은 당초 가장 긍정적으로 상정했던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 AI로 인한 생산성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강하거나, 2) 유가가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작기 때문일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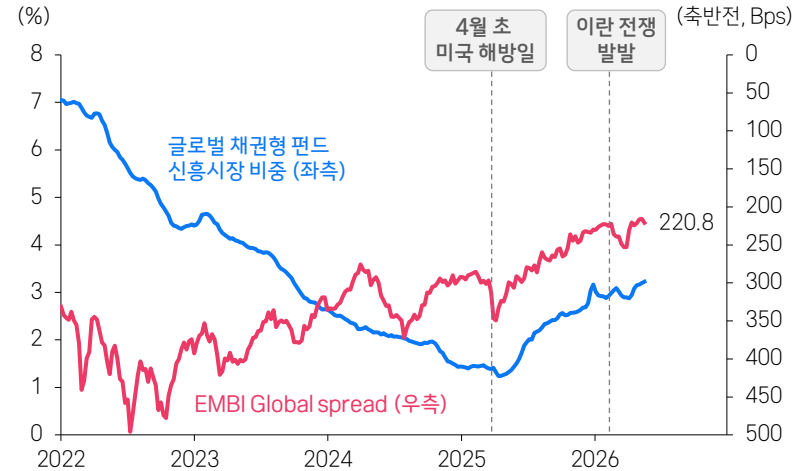
▶ 만약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더욱 확대될 전망

글로벌 유동성 흐름 vs 증시



자료: 삼성증권 추정

글로벌 채권형 펀드 신흥시장 비중과 EMBI 글로벌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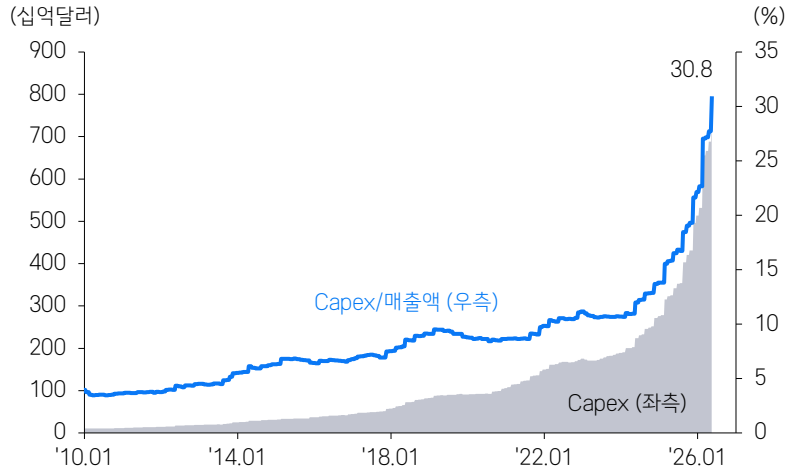
자료: EPFR, Bloomberg, 삼성증권

유동성 확장 효과 1) 원활한 기업 자금 조달

▶ 유동성이 풍부하면 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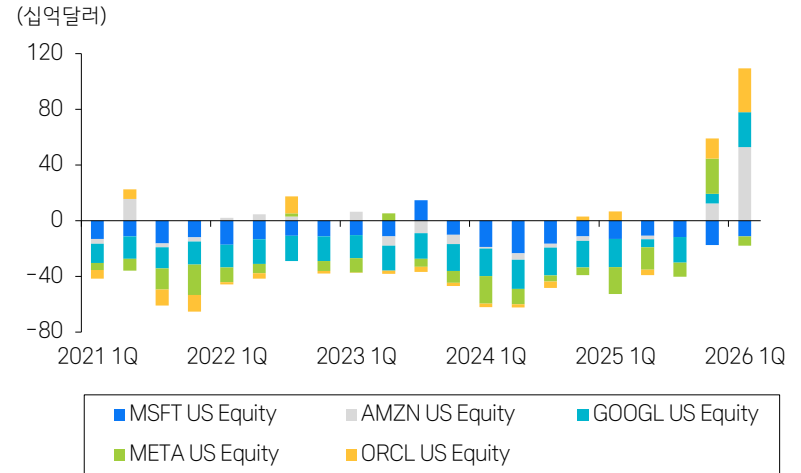
- S&P500 IT 소프트웨어 기업의 12개월 예상 Capex는 매출의 30.8%로 상당히 높은 수준
- 금리가 안정되어 있다면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 사이클을 지속할 수 있음
: 단, 금리가 급등할 경우 변동성 커질 가능성

S&P500 IT소프트웨어 기업 12개월 예상 Capex



참고: ICB 업종 분류 기준이나마존 포함
자료: LESG, 삼성증권

주요 빅테크 기업 재무활동 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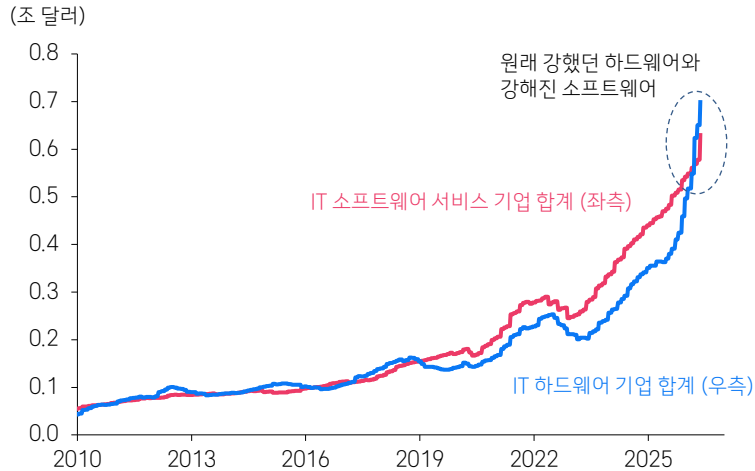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동성 확장 효과 2) 반도체 기업 이익 사이클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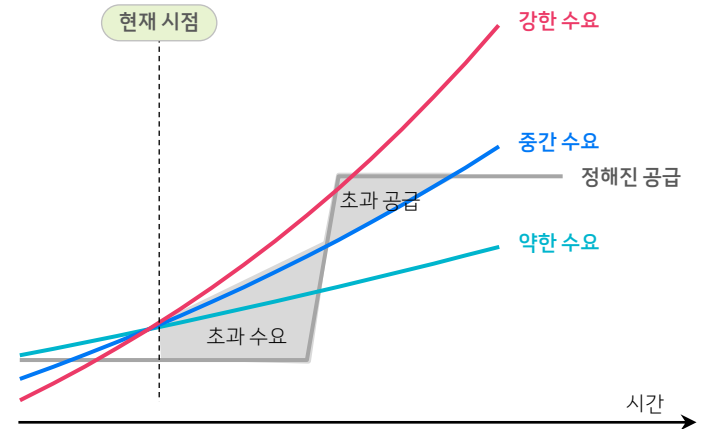
- ▶ 소프트웨어 기업의 투자와 하드웨어 기업의 이익 사이클이 장기화됨
- ▶ 반도체 시장의 경우, 초과 공급이 줄고, 초과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변화 가능

S&P500 업종별 12개월 예상 순이익 합계 (IT 하드웨어 vs 소프트웨어)



참고: ICB 산업분류 기준이나, 아마존은 IT 소프트웨어로 분류
자료: LSEG, 삼성증권

반도체 수요 공급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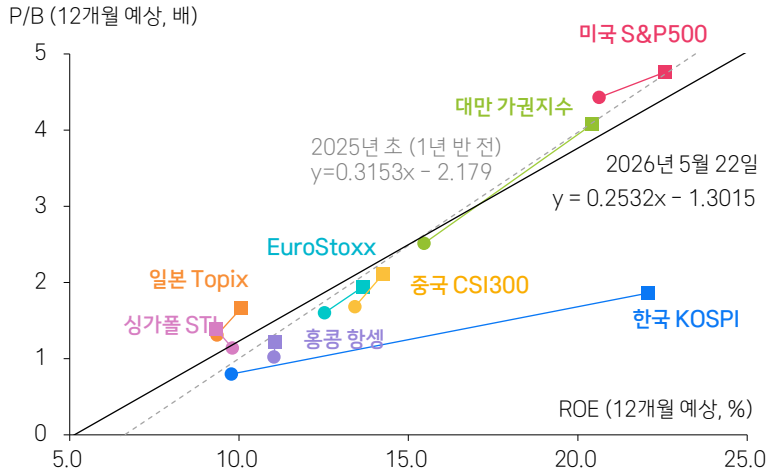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동성 확장 효과 3)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 상승

▶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 저점을 높임

- 2025년 10.1%였던 COE(자기자본비용)은 2026년 5월 22일 기준 9.1%로 하락. P/B 1배를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뜻
- 지난 1년 반 동안 ROE 상승이 없었던 싱가포르와 홍콩 증시도 P/B 상승
-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가격이 피크아웃하더라도 저점이 높아져 있다는 뜻. 리스크가 크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글로벌 증시 ROE와 P/B



참고: 동그라미는 2025년 초, 네모는 2026년 5월 22일 기준, 회귀선 도출시 KOSPI는 제외
 자료: LESG, 삼성증권

글로벌 증시 ROE와 P/B

증시 (%, 배)	2025년 초		2026년 5월 22일	
	ROE	P/B	ROE	P/B
KOSPI	9.8	0.80	22.1	1.86
S&P 500	20.6	4.43	22.6	4.76
EURO Stoxx	12.5	1.60	13.7	1.95
DAX	11.9	1.51	11.9	1.61
Topix	9.4	1.31	10.1	1.67
Taiex	15.5	2.52	20.4	4.08
CSI300	13.4	1.68	14.3	2.11
Hang Seng	11.0	1.02	11.1	1.22
STI	9.8	1.14	9.3	1.39

참고: 음영은 ROE 상승이 없거나 미미했음에도 P/B 밸류에이션이 상승한 증시들
 자료: LESG, 삼성증권

투자가 견인하는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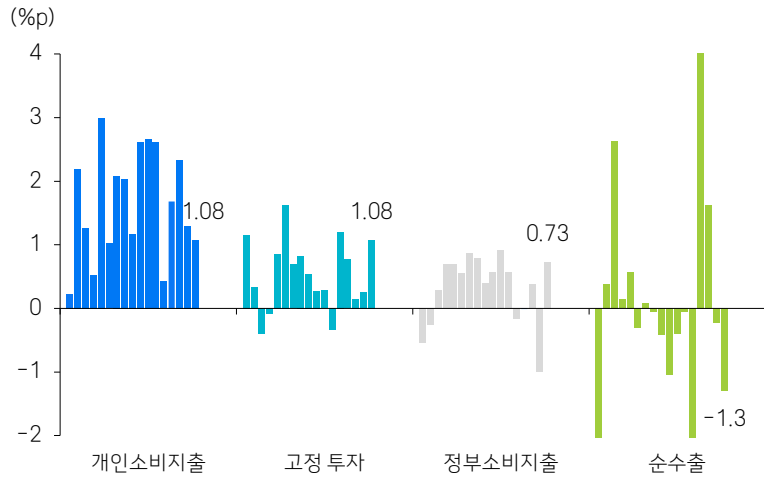
▶ 미국 GDP 성장에서 투자가 기여하는 부분 확대

- 개인소비지출은 비중이 크나, 성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음

▶ 미국 상업, 산업 부문 대출 급증하여 산업재 수요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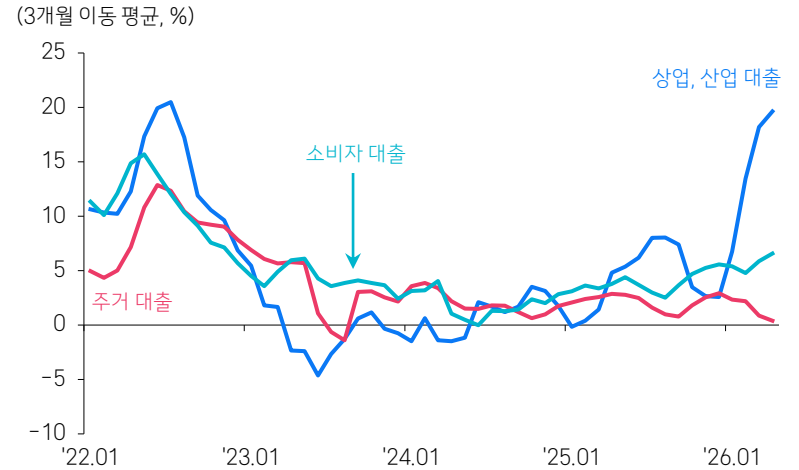
- OBBBA의 보너스 감가상각 등의 지원
: 보너스 감가상각은 일정 자산에 대해 취득 첫 해에 큰 비율을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세제 인센티브

미국 GDP 성장률 기여도



참고: 전분기대비 연율화수치 기준. -2%~+4%에서 절사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부문별 대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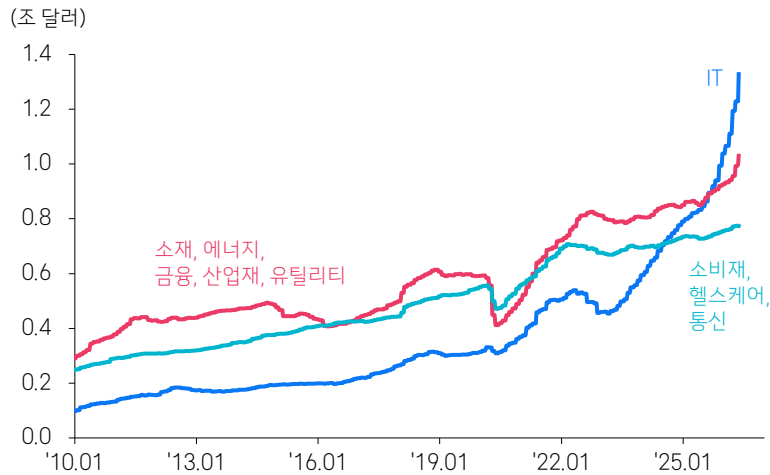


참고: 2026년 4월 기준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아직까지는 B2B 산업이 B2C 산업 대비 강세를 보이기 쉬운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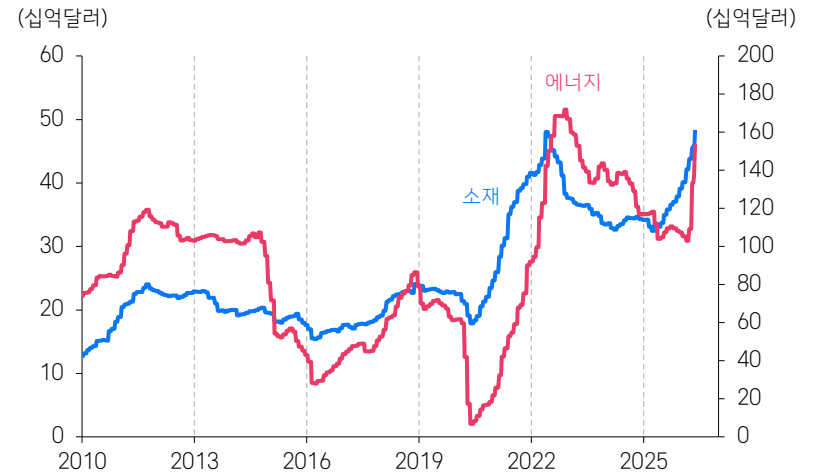
- ▶ IT를 제외하면 미국 증시 이익 모멘텀은 B2B 산업(소재, 산업재 등)이 B2C 산업(소비재, 헬스케어, 통신)보다 강세
- ▶ 에너지 업종 이익 모멘텀은 다른 업종 이익 모멘텀에 제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S&P500 업종별 순이익 합계*



참고: ICB 산업분류 기준이나, 아마존은 IT로 분류. *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자료: LSEG, 삼성증권

S&P500 업종별 순이익 합계 (에너지 & 소재)*



참고: ICB 산업분류 기준. *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자료: LSEG, 삼성증권

장기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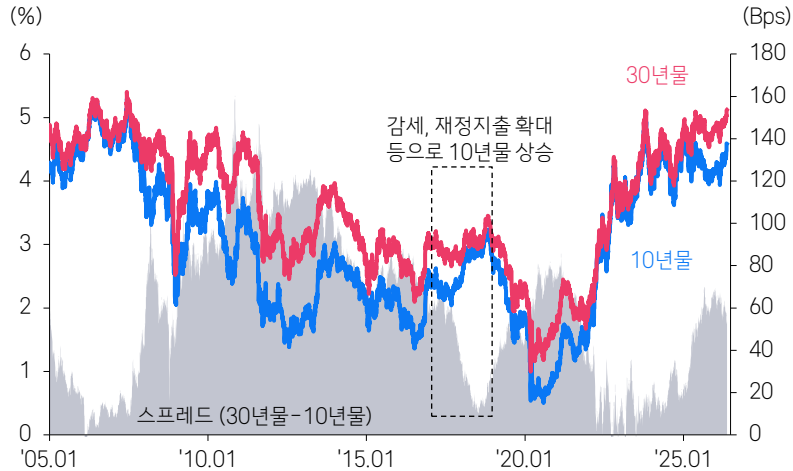
▶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 트럼프 행정부는 2018~2019년 10년물 금리를 30년물에 가깝게 상승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할 만함

▶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정부 재정 적자 급증 시그널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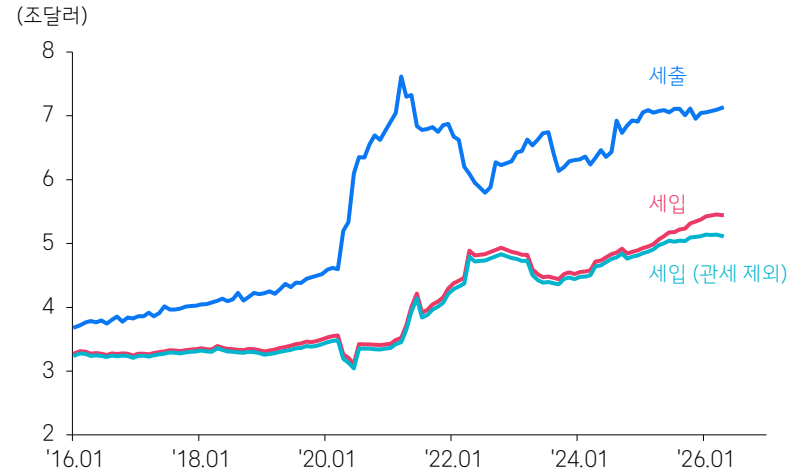
- 관세 수입이 사라질 경우,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다른 종류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미국 국채 금리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중앙 정부 세입 및 세출



참고: 과거 12개월 이동 합계
자료: LSEG, Quantwis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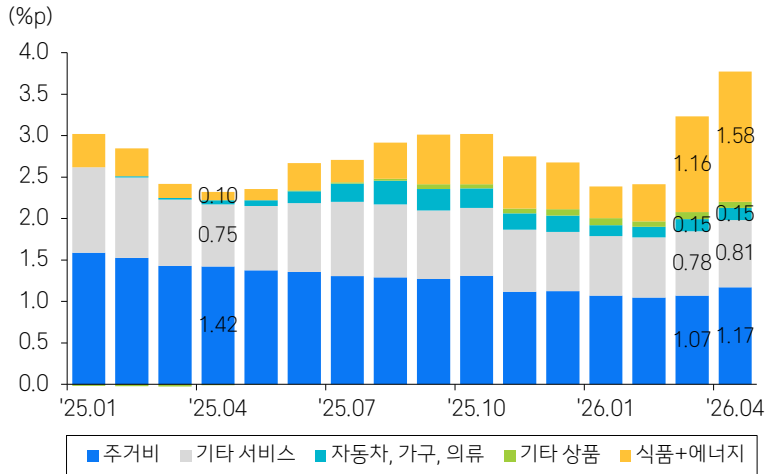
물가 지표 주시해야 하겠으나, 아직은 경기 모멘텀에 집중해야 할 때

▶유가 상승 영향 한동안 반영될 가능성

-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미국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8% 상승
- 주거비, 기타 서비스의 물가 기여도도 전월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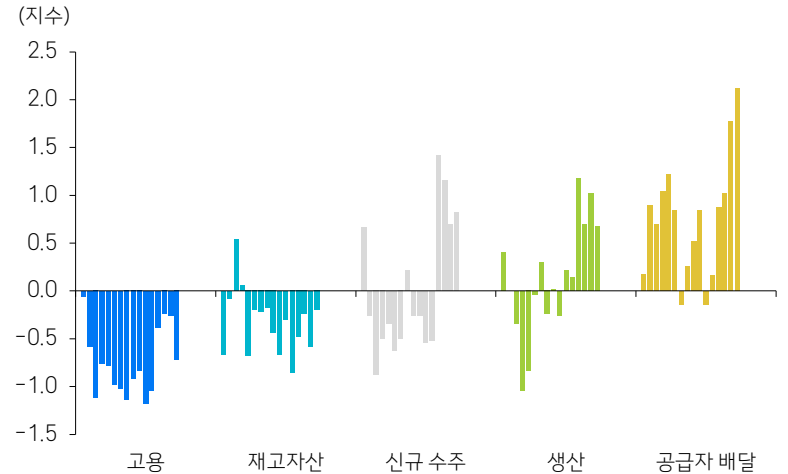
▶고용 부진에도 ISM 제조업 PMI는 상승세를 지속 중

미국 소비자물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ISM 제조업 PMI 기여도 (월간, 2025년 1월~2026년 4월)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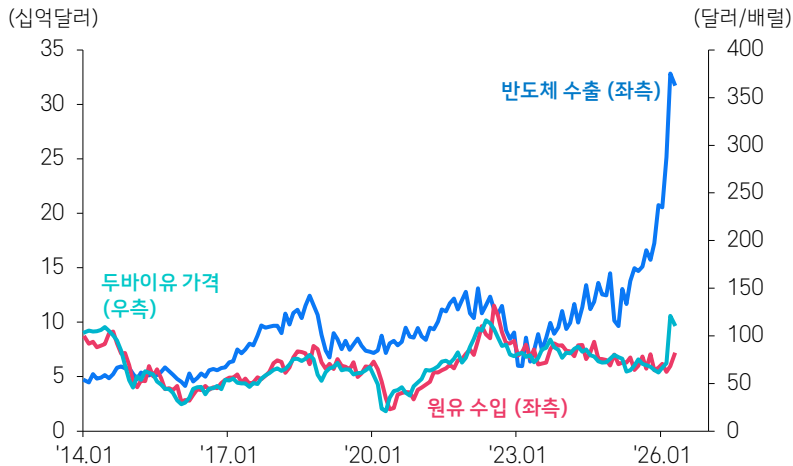
(한국) 수출 서프라이즈 이후 소비와 투자도 견고해질 전망

▶ 원유 수입을 압도하는 반도체 수출

- 유가 배럴당 90달러에서 경상수지 흑자 2,500달러 수준을 전망하나, 흑자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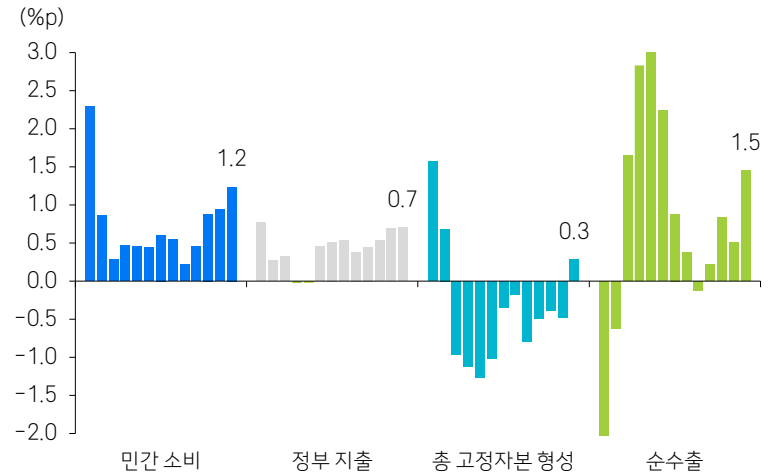
▶ GDP 성장은 순수출이 견인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도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

반도체 수출 vs 원유 수입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한국 GDP 전년 대비 성장률 기여도 (분기, 1Q23~1Q26)



자료: CEIC, 삼성증권

원화 가치 정상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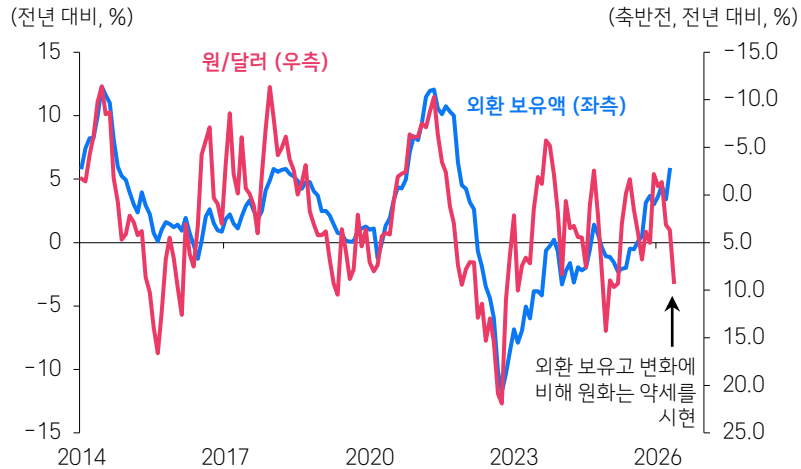
▶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원화

- 경상수지 및 외환 보유고 수준을 감안하면 원화 가치 저평가
- 급증하게 될 법인세 등은 재정 확대 요인이기도 하지만, 외화 공급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 한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도 단기적으로 둔화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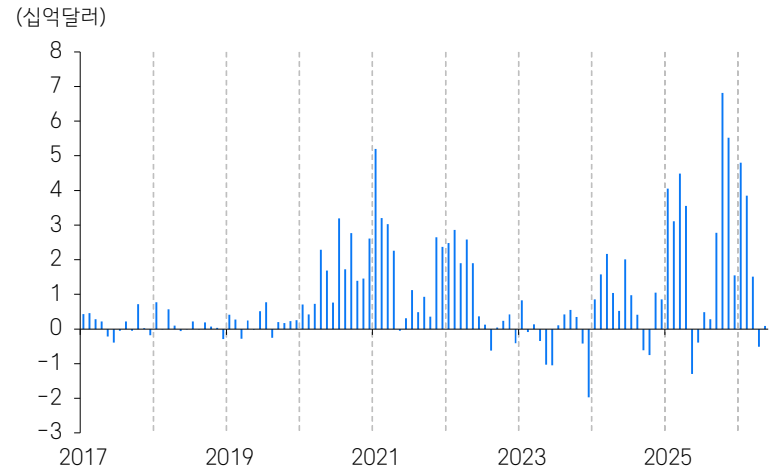
- 4월에는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외환 보유액 vs 환율



참고: 외환 보유액은 4월 말, 환율은 5월 19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한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월간)



참고: 2026년 5월은 18일까지 누계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삼성증권

하반기 주요 글로벌 기업 상장 영향도 점검할 필요

▶ 스페이스X 등 대규모 IPO는 증시 밸류에이션과 수급에 영향 줄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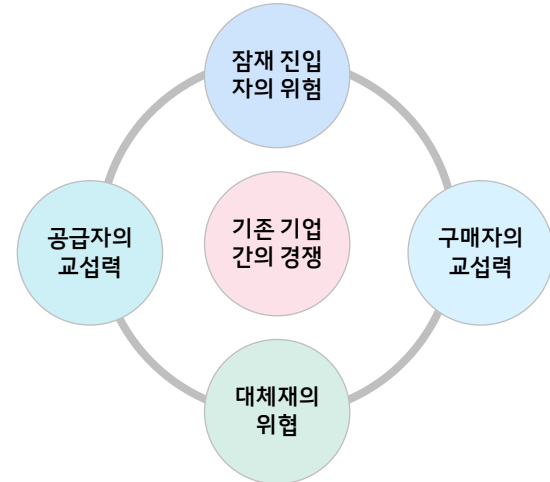
- 미국 주요 상장 예정 기업들이 적자 상태여서 증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가능성
- 오픈AI나 엔스로픽의 원활한 상장은 반도체 수요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
- 반면, CXMT의 상장은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심화 요인이 될 수 있음

글로벌 주요 상장 예정 기업

기업명	사업 내용	상장 예상 시기*
스페이스X	우주 항공 / 위성 인터넷	2026년 6~7월
오픈AI	AI 파운데이션 모델	2026년 4분기
엔스로픽	B2B 특화 생성형 AI	2026년 10월
CXMT	반도체 (DRAM/HBM)	2026년 상반기
스트라이프	글로벌 결제 인프라	2026년 상반기
데이터브릭스	AI 소프트웨어	2026년 중
레볼루트	디지털 banking/핀테크	2026년 중

참고: * 기업이 목표로 하는 시기로 실제로는 목표 대비 지연될 가능성 있음
 자료: 언론보도, 삼성증권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모델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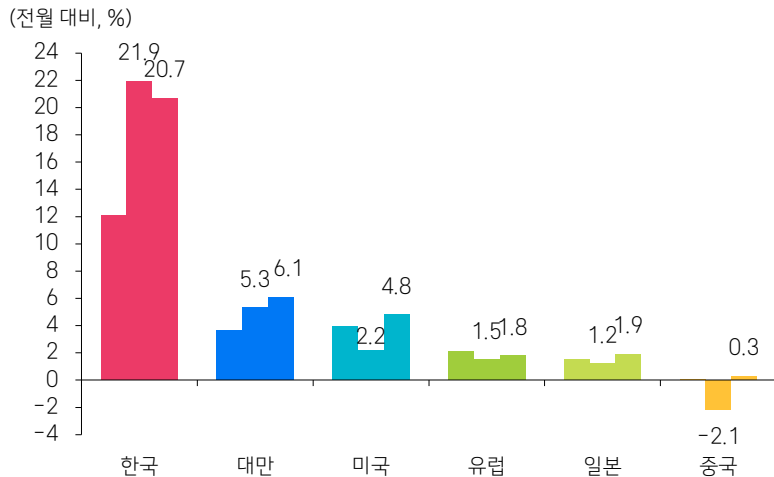
업종 전략

글로벌 증시 대비 양호한 한국의 이익 모멘텀

▶ 한국 이익 모멘텀 여전히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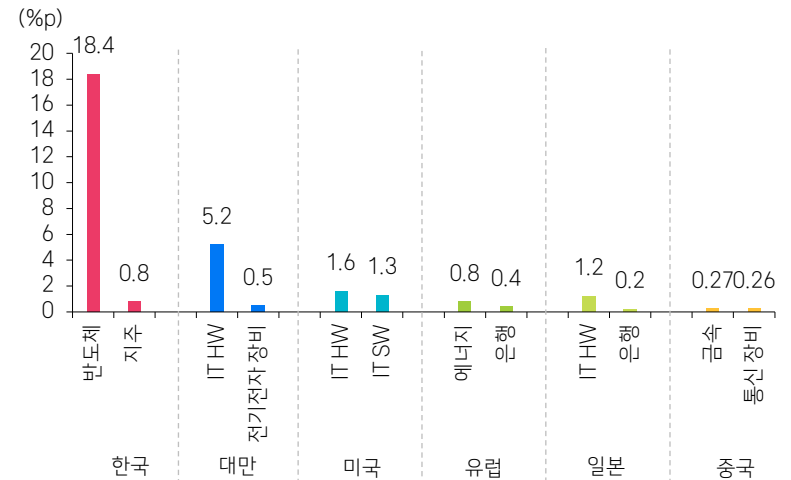
- IT 업종 비중이 높은 국가의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양호
-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도 전월 대비 모멘텀으로는 높은 수준인 1% 이상의 상향조정 지속 중

주요국 증시 전월 대비 12개월 EPS (3, 4, 5월)



참고: 5월 15일 기준, 한국 KOSPI 200, 미국 S&P 500, 유럽 MSCI 유럽, 일본 Nikkei 225, 대만 가관 지수, 중국 CSI 300 흑자 기업 대상
 자료: LSEG, Quantwise, 삼성증권

5월 업종별 증시 순이익 상향 조정 기여도



참고: 오른쪽 차트의 합계가 왼쪽 차트의 5월 수치를 설명. 차이는 기타 업종
 자료: LSEG, Quantwise, 삼성증권

2027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모멘텀 기대

▶ 주가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으나, 이익 모멘텀이 개선된 업종은 절반 정도

-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2026년 컨센서스 영업이익 전년대비 증가율 41.8%. 2027년은 해당 수치라 15.7%로 낮아짐.
-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상향 조정될 여지 충분하다고 판단

2026년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

(조원)	2025E	2026E	차이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86.8	607.5	520.7	599.6
자본재	51.6	97.8	46.2	89.6
에너지	5.8	21.0	15.3	263.1
증권	11.3	16.4	5.1	45.1
소재	5.9	10.6	4.7	80.1
은행	30.4	34.2	3.8	12.4
전자와 전기제품	1.8	5.1	3.3	189.6
자동차와부품	29.1	31.2	2.1	7.1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5.1	6.6	1.5	30.5
보험	8.8	10.2	1.4	15.7
합계	288.0	892.8	604.7	210.0
반도체 제외	201.2	285.2	84.1	41.8
반도체와 자본재 제외	149.6	187.4	37.8	25.3

참고: 5월 26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2027년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

(조원)	2026E	2027E	차이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607.5	794.9	187.4	30.8
자본재	97.8	117.1	19.3	19.8
전자와 전기제품	5.1	10.2	5.1	100.5
소재	10.6	15.2	4.7	44.4
자동차와부품	31.2	34.7	3.5	11.4
유틸리티	14.0	17.0	3.0	21.2
보험	10.2	12.4	2.2	21.9
은행	34.2	36.2	2.0	5.9
운송	5.0	6.4	1.4	28.8
기술하드웨어와장비	3.0	4.2	1.2	38.7
합계	892.8	1,124.9	232.1	26.0
반도체 제외	285.2	330.0	44.7	15.7
반도체와 자본재 제외	187.4	212.8	25.4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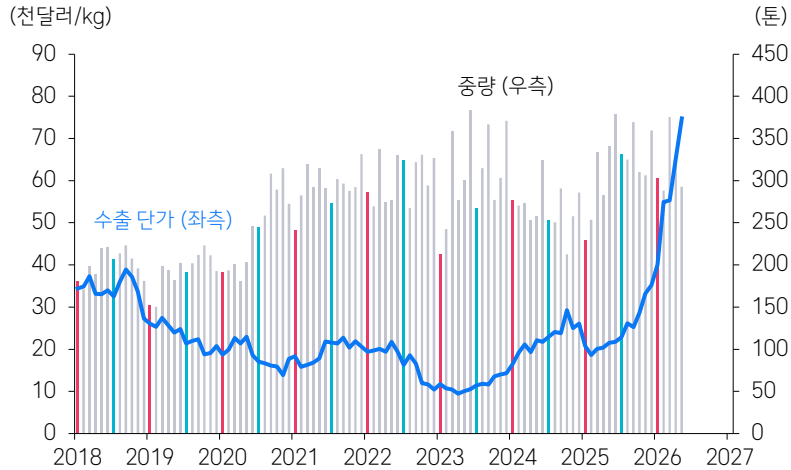
참고: 5월 26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반도체) 높아진 컨센서스 부담을 지우는 반도체 수출 단가 추이

▶ 컨센서스 높은 속도로 상향 조정되는 점은 부담이나 반도체 수출 단가 상승 고려하면 우려는 기회로 변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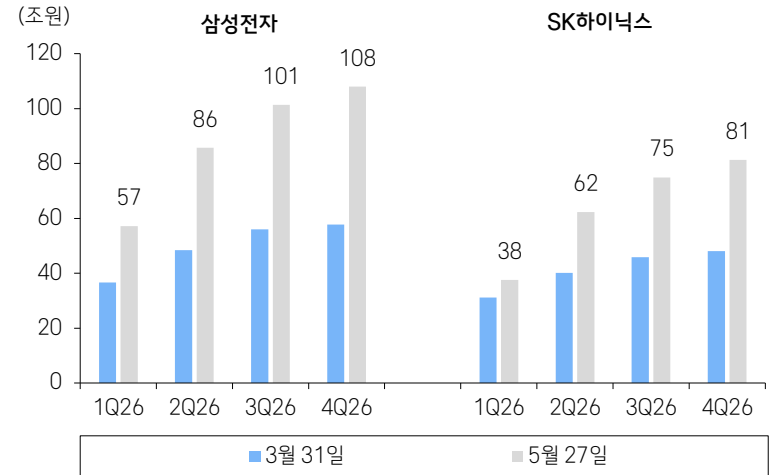
- 5월 20일까지 2분기 누계 반도체 수출 단가는 1분기 평균 대비 38% 상승 (2분기 전체로는 약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분기 컨센서스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하반기 전망치 상향 조정 여지는 남아있다고 판단

한국 반도체 수출 단가



참고: 2026년 5월 중량은 첫 20일×3/2
 자료: KITA, 삼성증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



참고: 1Q26 수치는 실적치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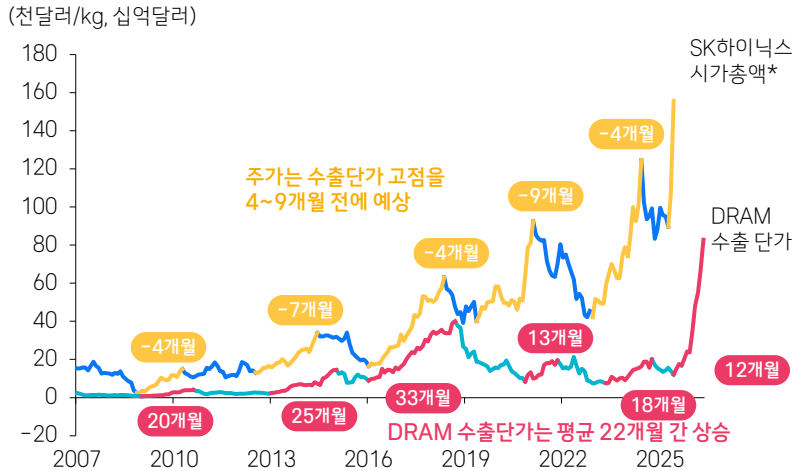
(반도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여부가 관건

▶ 과거 패턴은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6월까지는 무리 없이 매수 가능

- 지난 다섯 번의 반도체 수출 단가 사이클에서 상승 기간은 평균 22개월. 현재는 이번 상승에서 12개월이 지난 상황
- 주가 고점은 출하 단가 고점 대비 4~9개월 전에 형성. 9개월 전에 형성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22-12-9=1개월 남아 6월도 주가 강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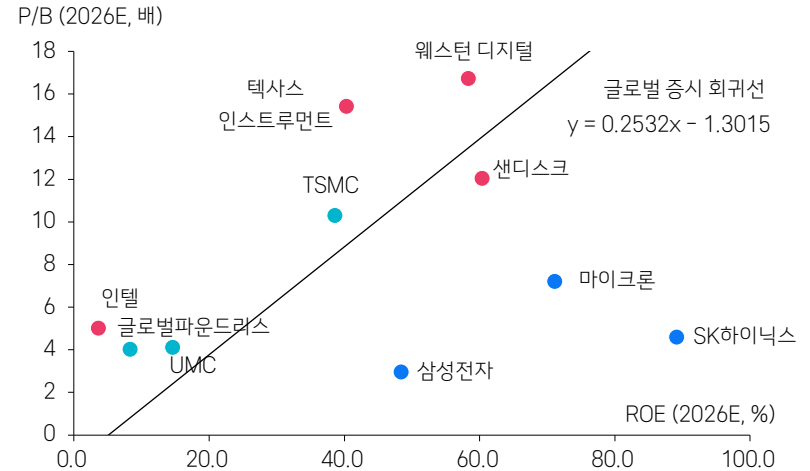
▶ DRAM 기업들도 이익 안정성이 증명되면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 축소될 수 있을 것

한국 반도체 수출 단가



참고: '26년 5월 DRAM 수출단가는 20일 누적 기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25년 6월까지지만 표시
 자료: 관세청, Quantwise, 삼성증권

반도체 주요 기업 ROE와 P/B



참고: 5월 26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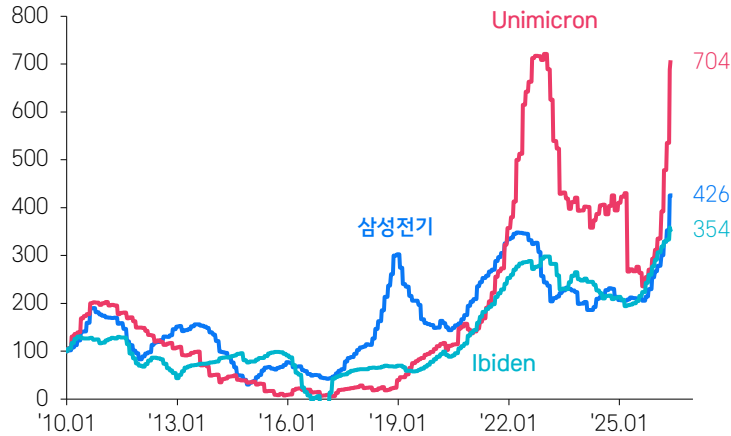
(IT 부품)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 있지만, 이익 모멘텀은 매우 강력

▶ 글로벌 증시에서도 나타나는 IT 부품 업종 강세

- TSMC에 가려져 있으나, 대만 증시 IT 부품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강력 (Unimicron, Nanya PCB, Synnex tech 등)
- 업종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익 전망치가 2~3배 가량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있을 것

기판 3사 12개월 예상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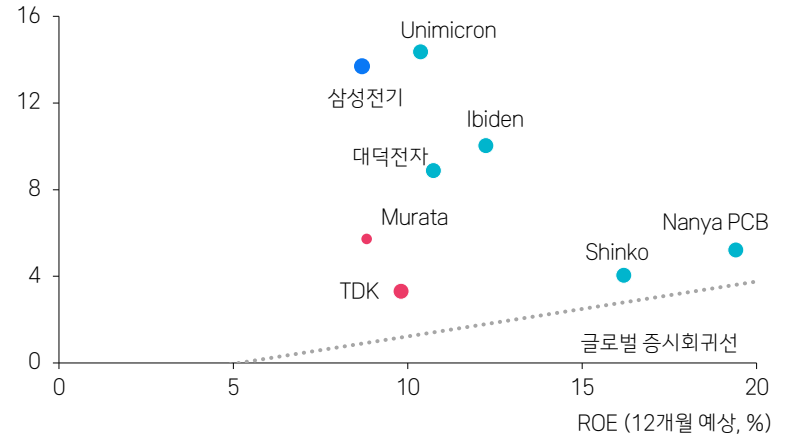
(지수화: 2010년 초=100)



자료: LSEG, 삼성증권

삼성전기 Peer 밸류에이션

P/B (12개월 예상,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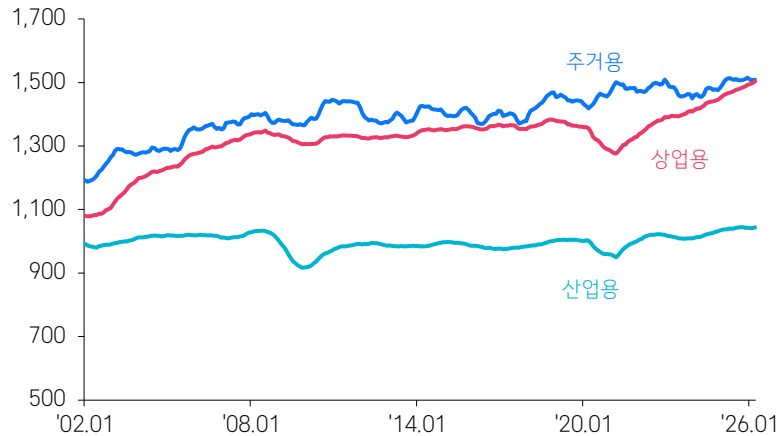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전력기기) AI가 좋다면 전력 수요도 견고할 전망

- ▶ 미국 상업용 전기 소비가 주거용 소비를 상회하기 직전
- ▶ 한국 전력기기 기업 수주 증가세 지속
 - 잔액이 증가하는 동안 받은 수주는 고마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미국 전기 소매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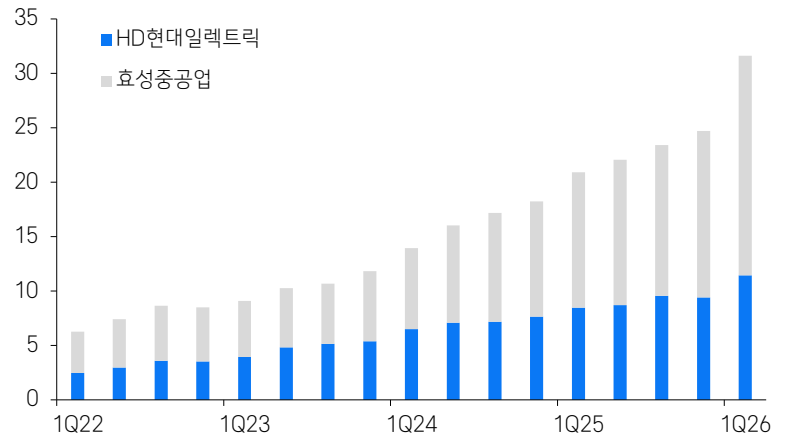
(12개월 이동합, 테라와트시)



참고: 2026년 3월 기준
자료: EIA, 삼성증권

한국 전력 기업 수주 잔액

(조원)



자료: 각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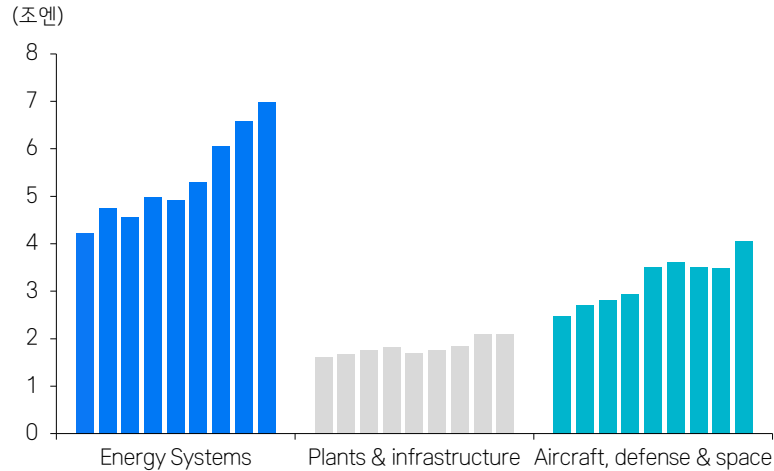
(전력, 에너지) 관련 수주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기업 에너지 인프라 관련 수주 확대

- 미쓰비시 중공업 에너지시스템 부문 분기별 수주 잔액 지속 상승 중
에너지 시스템 부문은 발전용 터빈, 보일러, 발전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력 연료 밸류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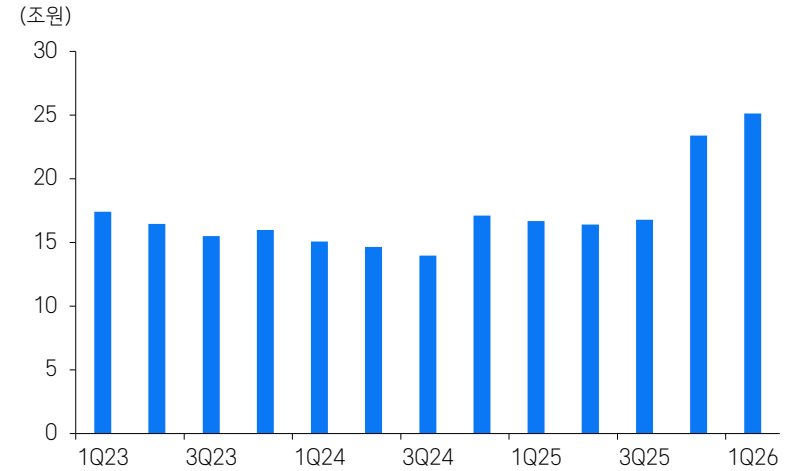
▶ 두산에너지빌리티 수주 잔액 증가는 이제 시작 국면일 가능성이 높음

미쓰비시 중공업 수주 잔액 (1Q24~1Q26)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두산에너지빌리티 수주 잔액



자료: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증권

(로봇) 관련 기업 2~3개의 종목을 선별해 보유하는 전략

▶ 어떤 기업의 수혜가 가장 강력할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

- 1) 액츄에이터 개발, 열관리를 담당하는 현대모비스, 2) 로봇 관제, 자동화 소프트웨어 구축을 담당하는 현대오트웨버의 수혜가 예상
- 로봇 관련 ETF를 매수하거나, 현대가 그룹 내 종목과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LG전자를 함께 보유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한 것

로봇 시모델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유형	구성 요소	특성
인터넷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영상	방대하지만, 물리적 액션 없음
합성 데이터	시뮬레이션 궤적, 가상 환경	저비용이나, 현실 전이 (sim-to-real) 한계
실세계 액션 데이터	관절 토크, 힘·촉각 센서, RGB 영상, 다축 모션	화소·고가·품질

자료: 엔비디아GROOTN1논문, 삼성증권

실세계 데이터의 가치: 귀하고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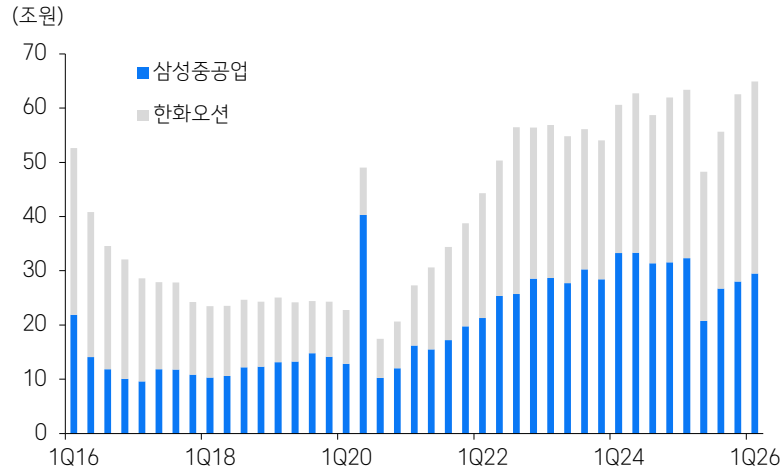


자료: 엔비디아GROOTN1논문, Silicon Valley robotics center, 삼성증권

(조선) 에너지, 소재 가격 상승이 모멘텀이 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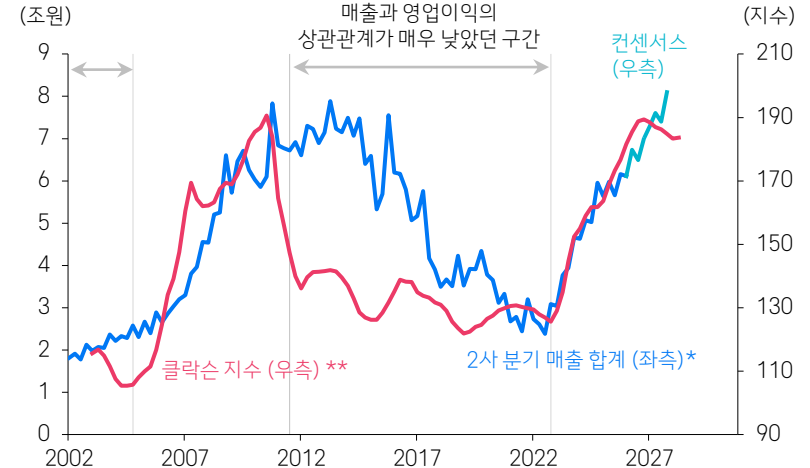
- ▶ AI에 직접 연관되는 다 산업재에 비해서 장기 이익 성장률을 낮게 보는 투자자들 있을 것
- ▶ 그러나, 에너지, 소재 가격 상승이 선가 지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 에너지, 소재 가격 상승의 헷지용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

조선 기업 수주 잔액



자료: 각사, 삼성증권

선가와 조선 기업의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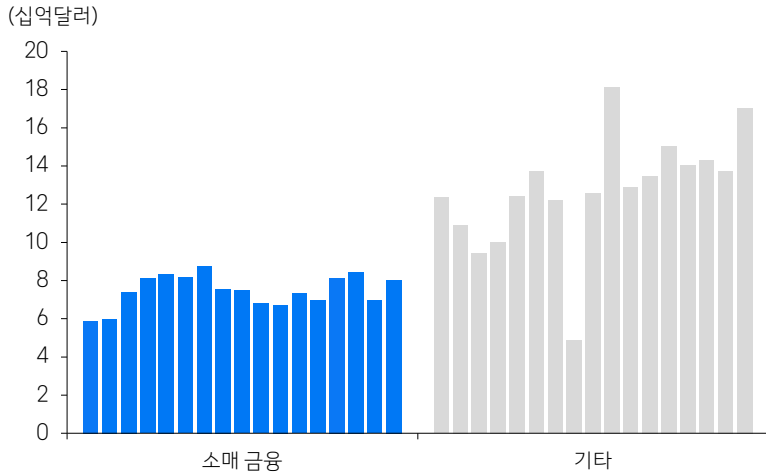
참고: *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합계, ** 매출이 선가 지수에 2년 후행하는 것으로 그림
 자료: 각사, 삼성증권

(금융) 소매 부문에 비해서 상업과 투자 부문 노출이 유리

▶ 소매보다는 자본 시장에 대한 높은 노출이 있는 산업이나 기업이 유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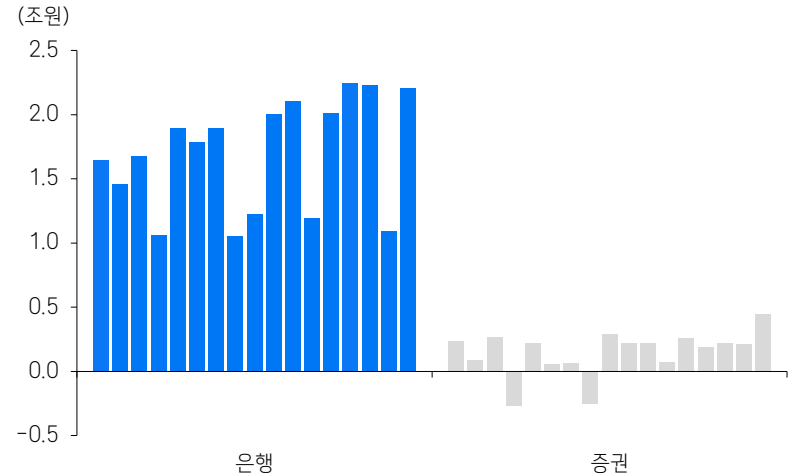
- 글로벌 유동성 확대 환경에서 은행 부문 실적도 양호하겠으나, 증권 업종이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주요 은행도 소매 금융 이외의 부문에서 성장 동력 있을 것으로 예상
: 스페이스X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이고, 기타 주관은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 참여

미국 주요 은행 부문별 당기순이익 (분기별, 1Q22~1Q26)



참고: JPMorgan, Bank of America 2개사 합계. 기타는 상업, 투자, 자산관리 기업 금융 포함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한국 주요 은행 부문별 당기순이익 (분기별, 1Q22~1Q26)



참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합계. 은행, 증권 외 기타 부문은 표시하지 않음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업종 전략

(유통) 내수 회복세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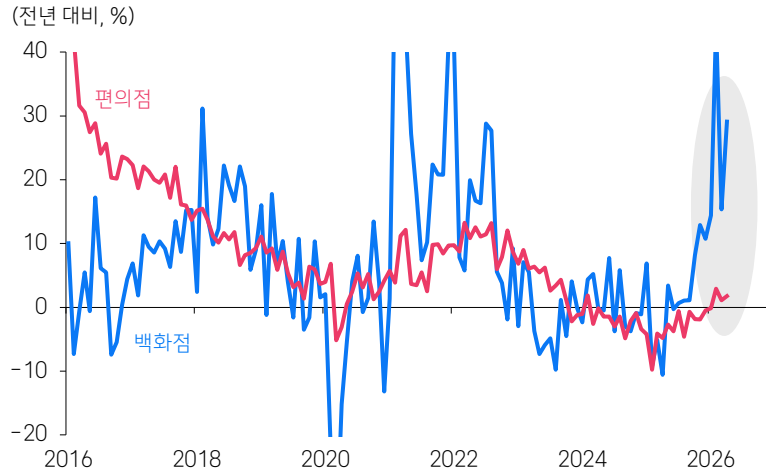
▶ 한국 소매 판매 회복세 지속 전망

- 정부 세수 증가, 기업 인건비 지출 증가, 배당 지급액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

▶ 외국인 입국자 성장세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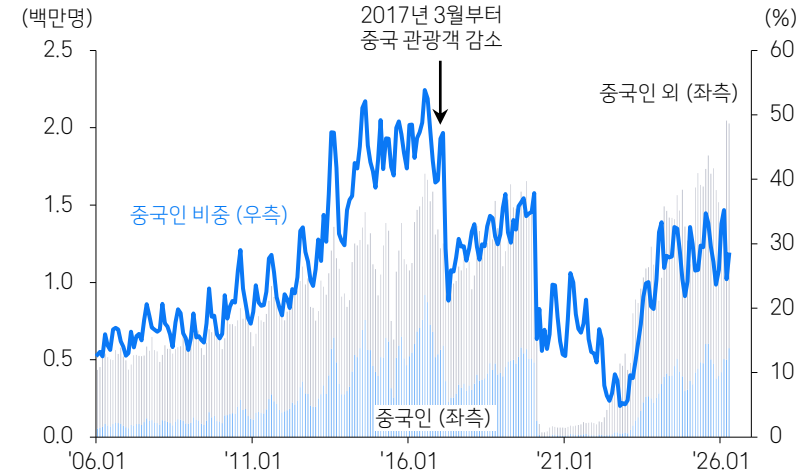
- 외국인 입국자 성장세 견조하나,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 향후에도 성장 여지 높다고 판단

카드 결제액 추정치 (백화점, 편의점)



참고: 2026년 4월 기준
자료: 한경에이셀, 삼성증권

외국인 입국자



자료: 한국관광공사, 삼성증권

Premium Picks - 한국

	종목명	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조원)	Valuation (배, %)				
			현재가	목표가		P/E	P/B	EPS 증가율	ROE	배당수익률
IT	삼성전자	005930 KS	299,500	300,000	1751.0	6.3	2.4	612.4	37.7	1.6
	SK하이닉스	000660 KS	2,289,000	1,800,000	1631.4	6.8	3.5	434.8	52.3	0.4
	LG전자	066570 KS	225,500	170,000	36.7	19.0	1.5	23.5	8.0	0.7
경기소비재	현대차	005380 KS	677,000	900,000	138.6	16.4	1.4	-1.6	8.5	1.8
	신세계	004170 KS	521,000	565,000	4.9	13.6	0.9	224.3	6.8	1.1
금융	한국금융지주	071050 KS	238,500	320,000	13.3	5.7	1.0	26.6	16.8	4.6
산업재	두산에너지빌리티	034020 KS	105,900	160,000	67.8	173.9	8.1	35.3	4.6	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KS	1,200,000	1,700,000	61.9	25.7	4.9	46.2	19.2	0.7
	효성중공업	298040 KS	3,653,000	4,300,000	34.1	36.2	9.7	63.3	26.8	0.3
	삼성E&A	028050 KS	50,800	64,000	10.0	13.2	1.8	17.0	13.5	1.7

참고: '26년 5월 28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2026년 6월 섹터/업종 View ①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긍정	반도체	이종욱	① 하이퍼스케일러의 AI Capex 상향 조정으로 AI 사이클은 장기화. AI 추론 수요에 따른 KV 캐시 폭증으로, 메모리 hierarchy 전반의 중요성 확대되며 메모리 소티지 상황 지속. ②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메모리 Capex 추정치를 각각 48조원(+20%), 40조원(+30%) 수준으로 상향 조정. 메모리 업계 전반 증설 일정을 앞당기고 있으나, 해당 증설분은 2027년 하반기 이후 기여할 수 있어 bit growth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③ AI 수요가 스토리지까지 확대되며 eSSD 중심 NAND 가격 강세 지속되며 하반기 NAND 영업이익률 증가 흐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메모리 3사 중 단기간 내 범용 메모리 증설이 가능한 삼성전자가 Q 측면에서 수혜, HBM4 시장에서의 기술 캐치업 시현하며 2026년 HBM/범용 DRAM 시장에서의 마켓쉐어 확대 기대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문준호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소부장 기업들의 다년간의 이익 성장 기대감 여전히 유효. 2026~2028년에 걸쳐 진행 예정이었던 증설 프로젝트들이 모두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 고객사들의 투자 결정 시점과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 인식 시점의 시차는 존재하겠으나, 2분기부터 계단식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또한, 높아진 기저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도 가파른 성장을 기대. 과거 대비 높은 프리미엄을 향유 중임에도, 이익 급증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모멘텀은 지속될 것. 신제품 성과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 예상	테스, 솔브레인
	전기전자/IT 부품	이종욱	① MLCC 업계 전반 2026년 가동률 90~100% 수준으로, Murata는 상반기 MLCC 가격 인상을 발표. AI MLCC 소티지로 저부가가치 IT용 MLCC Capa 잠식되며 업계 전반 MLCC 가격 상승 전망. ② Nvidia, AMD, Broadcom 등 AI GPU 수요 증가에 따른 고다층 FC-BGA 중심의 ASP 상승세 전망. 고객사들은 FC-BGA 물량 확보를 위해 LTA, 선수금, Capex 투자금 지급 등을 단행하며 증장기적 수요 가시화. 삼성전기는 MLCC와 FC-BGA 소티지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기업. 최근 대리점향 MLCC 가격 인상 단행, 실리콘 컴패시터 수주 공시 등을 통해 공급자 우위의 업황이 확인되며 2028년까지의 영업이익 상승세 지속 전망	삼성전기
	제약/바이오	서근희	2026년에도 항암제, 비만 치료제, AI 신약 등 실질적인 글로벌 트렌드는 유지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구체적인 계약 성과나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기업에 주목 필요. 주요 학회를 앞둔 상황에서 각 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파이프라인, 플랫폼의 확장성이나 임상 모멘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본질적인 기업 가치에 집중하며 관심 유지. 최근 미국-이란 전쟁 합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바이오 투자センチ먼트 회복 기대. 무역 협정을 맺은 한국, EU,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는 15%의 관세가 적용. 또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면제 대상(1년 후 재검토), 희귀 의약품, 일부 기타 전문 의약품 또한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긴급한 공중보건 수요에 대응하는 경우에도 관세 면제 대상.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는 1년 뒤 재검토 대상이기는 하나, 현시점에서 관세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한미약품, 셀트리온

자료: 삼성증권

2026년 6월 섹터/업종 View ②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긍정	2차전지	장정훈	<p>전방 전기차 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은 보조금 폐지영향으로 중국은 반내권 정책과 구매세 감면 폐지로 둔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ESS 시장은 세액공제 효과가 큰 미국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 2차전지 밸류체인에 긍정적. 최근 미-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 황산 수출 중단으로 인해 전반적인 배터리 제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점은 리스크</p> <p>한편, 5월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6월 지방 선거 전 후로, 주식 시장내 풍부한 유동성이 예상되고, 테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한 투자 대응이 필요</p>	삼성SDI
	자동차	임은영	<p>최근 아틀라스의 양산 모델 공개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한 기대로 업종 전반의 주가 상승. 테슬라 시총이 토요타 시총을 넘어섬,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된 것처럼, 현대차/기아 시총이 토요타 시총을 넘어섬, Physical AI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p> <p>첫번째 트리거는 3Q26에 로봇혼련 센터(RMAC) 가동을 앞두고, RMAC 지분 구조와 로봇 생산공장 발표. 현대차그룹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로봇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미 빅테크와 JV나 지분 투자가 예상. RMAC은 현대차/기아의 로봇 행동데이터 사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p>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계/방산	한영수	<p>국내 방산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도 프리미엄 거러 중. 섹터 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별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p> <p>전력기기 산업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될 것. 특히 북미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로 구조적인 전력부족을 겪는 가운데, 노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수요까지 발생.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역시 오히려 한국 업체들에게는 평가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상태. 국내외 전력기기 산업 주가가 모두 급등을 거듭하는 상황. 섹터 내에서 HD현대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를 설명하는 것이 용이. 우선 회사의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주력이 초고압 제품. 북미 비중도 높은 편. 이론적으로 사업구조가 단순할수록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거러가 정당화. 해외에서는 초고압의 강자이자 복합기업인 GE 버노바가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러. 국내 경쟁사들 밸류에이션도 최근 급등. 1분기에 회사는 이미 2025년 연간 수주의 42%를 확보. 또한 추가 평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해도, 한국과 북미의 증설로 인한 외형 성장이 가능한 상태. 친환경 GIS수요도 기대. HD그룹 계열사와의 데이터센터 관련 제품에서 협업 가능성도 충분</p>	HD현대일렉트릭
조선	한영수	<p>HD현대중공업의 1분기 실적은 사실상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호실적 기록. 특히 동사의 우수한 원가 구조를 증명한 실적이었음. 향후 고선가 수주의 매출인식 확대로 추가 수익성 개선을 예상. 동사의 순현금도 1분기말 기준 3.7조원에 육박하며 군산야드 매각 성사 시, 추가 현금 유입 예상됨. 수주 실적도 양호한 상황. 동사는 올해 현재까지 지난해 연간 신규수주의 60%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 엔진부문도 북미 데이터 센터용 발전 엔진 수주를 확보. 발전 엔진 제조업체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주가 측면에 긍정적 효과 기대. 또한 발전용 엔진 수요 증가는 선박용 엔진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짐을 의미. 평가 인상효과 기대. 동사의 프리미엄 요인들과, 현재 산업재 섹터 평균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접근. 그럼에도 충분한 상승여력이 존재</p>	HD현대중공업	

자료: 삼성증권

2026년 6월 섹터/업종 View ③

업황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Idea	Top Picks
긍정	의료기기	정동희	지속 가능한 성장 창출 중인 의료 미용 업종 최선호 유지하며, 독자 기술 기반으로 매출 성장 실현 중인 연구용 장비 업체 관심 권고. 안정적인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의 함수보다 시장 내 초기 진입자와 기술력 혹은 영업력에 기반한 독과점적 입지에 더 큰 가치 부여하는 상황인 만큼, 2026년에는 견고한 성장과 끊임없는 모멘텀을 제시해줄 업체에 주목 필요. 수익성 경영 기조에서 북미 시장 직판 병행 추진 및 내수 시장 포트폴리오 확장 진행 중인 휴젤 top pick 제시하며, 랩 자동화와 오가노이드 관측 수요 증대 수혜가 예상되는 큐리오시스, 토모큐브 관심 권고. 전쟁 상황 장기화시 유럽 및 중동향 의료기기 수출품의 항공 운송 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으로 휴젤, 파마리서치 등 일부 의료미용 기업의 중동 수출 성장세 단기간 둔화될 수 있으나 관세 자체는 현지 대리점 부담이며 전사 매출 대비 비중 5% 미만으로 실적에의 영향은 미미	휴젤
	지주회사	박세웅	지주회사는 1) 자회사 및 별도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 달성과 2) 이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자본 활용 정책이 2026년 주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 판단. 한편 2027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액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주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일수록 해당 이벤트가 주가 리레이팅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존재. 업종 Top pick은 SK를 추천. 동사는 2026년 현금흐름 개선에 따른 주주환원 강화 및 차입금 상환 등 효율적 자본배치를 통한 NAV 할인을 축소 기대되기 때문. 1) 주요 자회사의 이익 체력 강화에 따른 배당금 수익 및 브랜드로열티 수익 증가, 2) SK실트론 지분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 3) SK스퀘어 현금 배당에 따른 SK하이닉스와의 현금 연결성 강화 기대	SK
	화학	조현렬	화학 업종은 중동 분쟁으로 상승한 원재료를 제품 가격에 온전히 전가하지 못해 스프레드가가 축소. 1분기 및 2분기 실적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 재고 효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으나, 향후 유가 안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재고 효과 우려로 의미 있는 추가 반등은 어려워 보임.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보다는 비석유계 원료를 사용하거나 스페셜티(고부가가치 특수) 제품 비중이 높은 기업을 선호	OCI홀딩스
	정유	조현렬	한국 정유사들은 현재 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으로 수혜를 입고 있음. 내수 시장은 정부의 가격 상한제로 인해 마이너스 마진을 겪고 있으나, 규제 받지 않는 건조한 수출 실적을 통해 이러한 손실을 상쇄 중. 중동 내 정유 설비 파손에 따른 공급 감소와 고갈된 재고 축적을 위한 글로벌 수요를 고려할 때,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전쟁 종료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S-Oil과 SK이노베이션의 수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S-Oil
	증권	정민기	5월 일평균거래대금은 100조원을 상회하며, 1분기(66조원) 대비로도 30% 이상 증가한 수준. 증시가 전대미문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업종 또한 지속적인 동반 상승을 기대. 다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증권사 채권운용손익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1) 지수 신고가 등 바탕으로 국내 주식 운용 부문에서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2) 일부 회사의 경우 해외 혁신기업 IPO 등에 따라 관련 손익 인식이 예상되며, 2분기 실적 또한 1분기 이후 Peak-out 우려가 무색한 호실적 전망. 종목 선정 관점에서는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 따른 회사별 M/S 차이가 관찰되고 있는 만큼 해당 비즈니스 영역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한 대형 증권사 위주 접근을 추천	한국금융지주

자료: 삼성증권

2026년 6월 섹터/업종 View ④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긍정	대체투자 (리츠/인프라)	이경자	<p>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시장 금리 상승. 상장리츠의 평균금리는 2025년 큰 폭 하락했으나 2026년 추가 하락 여지는 제한적. 그럼에도 차입구조 다변화, 만기 분산 등으로 평균금리 상승 압력 역시 최소화하며 전년 대비 보험 혹은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 이후 리츠들의 위기 관리 능력은 더욱 강화. 그럼에도 자금조달 및 조달금리에 우위가 확실해진 기업 스폰서형 리츠 중심의 투자 접근 필요</p> <p>2026년 민투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리츠보다 인프라펀드의 모멘텀이 우세할 전망. 민투법 개정안에 주요 안 중 하나인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비율이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상향됨에 따라 인프라펀드의 유상증자 리스크 해소. 국내 인프라는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 및 생산적 금융 확대로 덜 활성화, 데이터센터 및 연안 에너지의 사업성 개선으로 투자 기회 확대 전망</p> <p>KB발해인프라는 배당수익률 6.5%로 메인 자산인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선순위대출 전액 상환 후 빠른 잉여 현금흐름 축적 고려 시 운영만기인 2036년까지 높은 배당 가시성과 상승 여력. 보령 LNG터미널,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등 신규 투자 이뤄지며 성장성 확보</p>	KB발해 인프라
	건설	허재준	<p>올해 건설사의 수주와 실적은 다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수주의 경우, 원전과 LNG 등의 수주를 통해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의 확장이 기대됨. 다만 실적의 경우, 다소 도전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음.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공사비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 또한, 올해부터 신규 주택 공급도 제한적. 2021~2022년 저마진 현장의 준공 완료로 인해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탐라인의 성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 따라서 당분간 건설업 투자는 실적, 수주 관점에서 성장이 나오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p>	삼성 E&A
	미디어/엔터	최민하	<p>1분기 엔터 업종은 BTS의 신보 발매 및 컴백 이후 셀문이 발생하며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은 상황. 5~6월에 주목받는 저연차 아티스트들 르세라핌, 베이비몬스터, 코르티스 등의 활동이 몰려 있어 성장성을 입증하고 시장 우려를 완화해 줄 것으로 전망. 와이지엔터테이먼트는 빅뱅의 8월 월드투어 시작이 공식화된 가운데, 신보 발매까지 확정되어 하반기에는 빅뱅의 실적 기여에 더해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그리고 가을 데뷔 예정인 신인 아티스트 성과도 지켜볼 필요</p> <p>미디어 업종은 매크로 환경 영향으로 방송·광고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업황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인 점은 아쉽지만 개선의 방향성은 유효. 콘텐츠 제작사의 제작 편수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도 확인될 전망. CJENM은 콘텐츠 실적 회복과 음악 사업 성장성에 주목</p>	와이지엔터 테이먼트, CJENM
	인터넷/SW	오동환	<p>AI 에이전트의 미미한 초기 성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지연 등으로 주가 동력은 약세를 보이는 상황.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인터넷/SW 섹터 밸류에이션 반등 열쇠가 될 전망. 민주당의 공격적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원화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가시성 확보로 네이버, 카카오 등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할 전망. 쿠팡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규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네이버쇼핑 등 경쟁사에 대한 반사 수혜도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전망</p>	NAVER
	은행	김재우	<p>은행업은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생산적 금융 중심 대출 성장률 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NIM도 개선세를 보일 전망. 이에 이자이익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 최근 매크로 리스크 증대로 인한 건전성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자이익 성장세는 관련 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기대</p> <p>은행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 은행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Valuation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업황 사이클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기조의 지속이 Valuation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p>	KB금융, 하나금융 지주

자료: 삼성증권

2026년 6월 섹터/업종 View ⑤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긍정	통신	최민하	통신 업종은 안정적인 실적과 주주환원 매력으로 재평가 국면. 글로벌 AI 생태계와 연결 및 선제적인 투자 성과가 부각되면서 단순한 방어주를 넘어 성장 스토리를 갖춘 업종으로 시장 인식이 전환. 특히 올해는 실적 정상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배당 재개와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으며, AI 및 인프라 중심의 사업 구조 고도화가 중장기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SK텔레콤은 AI 투자 성과가 확인되고, 금년 이익 성장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며 배당 재개 등 주주환원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	SK텔레콤
	게임	오동환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구간에서 유가나 환율, 물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게임 섹터 재조망 전망. 자체 결제 확산과 앱마켓 수수료 인하, AI 도입과 구조조정, AAA급 게임 흥행,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등 긍정적 시장 환경으로 시장 전반 수익성 개선 예상.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투자 매력 상승. 펠어비스의 붉은사막, NHN의 DISSIDIA DUELLUM FINAL FANTASY, 넷마블의 일곱개의대죄:오리진 등 신작들의 흥행으로 관련 기업들의 2Q26 실적도 개선 전망. 특히 레거시 IP 게임들의 견조한 매출 흐름, 하이퍼 캐주얼게임 모멘텀의 본격화, 강력한 신작 라인업이 기대되는 NC를 업종 내 Top pick으로 유지	NC
	결제	김재우	결제사들의 실적은 Top line을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이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담 요인. 다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기 회복 및 주식시장 중심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우려보다는 긍정적 요인이 보다 크다고 판단. 결제사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된 가운데, 핵심은 결제시간 실적 차별화. 특히, 카카오페이와 NHN KCP가 상대적으로 높은 Top line 증가율을 시현하며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주식거래 MTS에 따른 실적 개선 기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각 유지	카카오페이, NHN KCP
	섬유 의복	이혜인	브랜드 - 2026년 국내 브랜드사는 해외 진출에 따라 성장과 내수 소비 확대에 따른 성장이 기대. 특히 F&F는 1) 중국인이 선호하는 MLB 브랜드 기반 인바운드 확대(특히 중국인) 트렌드에 따른 내수 실적 개선과 2) 디스커버리 중국 진출 모멘텀 확보하고 있는 만큼, 최선호 기업으로 제시. OEM - 2026년은 미국 의류 소매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오더 확대 기대.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매 판매가 성장세가 더욱 견조한 만큼, OEM사별 고객사 포트폴리오에 따라 실적 차별화 확대될 전망. 그중 프리미엄 브랜드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영원무역 최선호 기업 유지	F&F, 영원무역
	유통	백재승	작년 상반기 낮은 소비 기저에 더해 한국 수출 및 금융시장 호조에 기인한 부의 효과와 견고한 인바운드 수요에 기반해 한국 소비 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조적인 소비 양극화 기초까지 더해져 백화점 업체의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1Q26 실적을 통해 편의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대부분 유통업체들도 경쟁 완화에 기인한 수익성 개선을 경험 중에 있어 유통산업 전반적으로 이익 개선 기조 이어질 것. 다만, 아직은 수익성 개선만 경험 중인 타 업체 대비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 중인 백화점 업체의 상대적 매력 지속될 것	신세계

자료: 삼성증권

2026년 6월 섹터/업종 View ⑥

업황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중립	운송	김영호	<p>해운(현대글로벌비스): SCFI 2월 말 1,333포인트에서 중동 분쟁 직후 1,700포인트, 현재 2,200 포인트 수준까지 상승. BDI는 3,000포인트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강세. 다만 중장기적으로 컨테이너와 벌크 수요를 넘는 신조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공급 과잉 리스크 존재. 다만 PCC는 중국의 완성차 수출이 견조, 현대글로벌비스는 비계열사 물량 증가, 단기 용선 축소로 PCC 부문 수익률이 지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익 증가 지속만으로는 회사가 공언한 ROE를 유지하기 어려워 배당 확대 전망</p> <p>항공(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으로 LCC 자회사 포함 국제선 여객 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메가캐리어 탄생하며 장기적으로 국제선 여객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와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 다만 단기적으로 중동 분쟁이 항공유와 환율의 급등을 초래, 영업비용의 30%가 유류비인 항공사의 부진한 수익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p>	현대글로벌비스
	철강/금속	백재승	<p>중국 정부가 최근 철강산업 신규 생산능력 확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1) 정책 제시보다는 실제 실행이 더 중요하고, 2) 아직 수요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중국 철강 시장의 빠른 회복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판단. 다만, 중국 철강 생산 및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예의주시 필요. 한편, 한국 내수 철강 가격은 보호무역 강화에 기인해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철강사들의 실적 또한 1Q26을 바닥으로 점진적 개선 기대. 최근 리튬 시장 회복까지 겹쳐져 양호한 실적 흐름 기대되는 POSCO홀딩스에 주목. 비철금속은 가격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나, 풍산은 방산사업 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 management risk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p>	POSCO홀딩스
	보험	정민기	<p>최근 1)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 확대 및, 2)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승 등에 따라 시장금리, 특히 장기채권 금리 위주 상승세가 부각되고 있음. 보험업종의 경우 금리상승이 1) 단기적으로는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운용손익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나, 2) 본질적으로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운용수익률 상승 및 보험손익/마진 구조적 개선 등에 따라 긍정적 요인임. 이에 따라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보험업종 또한 주가 상승 탄력성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음. 업종 내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종목(부채 듀레이션 긴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유니버스 내에서는 현대해상,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종목이 이에 해당</p>	현대해상

자료: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5월 28일 현재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E&A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5월 2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2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